

전국 최초 '소상공인 프로보노단' 출범

백년가게 전북지역협의회(회장 김태정)는 소상공인 현장맞춤형 지원을 위해 8월 8일 도내 백년가게와 전북중기청을 비롯한 도내 유관기관이 '전북 소상공인 프로보노단'을 구성해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전북 소상공인 프로보노단' 발대식은 소상공인의 리더스클럽인 백년가게 전북지역협의회와 유관기관이 결집해 공식적인 활동의 출발과 성공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각 기관이 프로보노단 활동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는 조력자가 될 것을 약속하고, 각 기관의 대표자가 협업을 도모하겠다는 다짐의 협약을 체결했다.

프로보노의 주축이 되는 백년가게 전북지역협의회는 2018년부터 업력 30년 이상의 우수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소기업 대상으로 중기부에서 선정한 전북지역 백년가게 31개 업체가 네트워크 구축과 상호발전을 위해 구성했다. 지난 2월 21일에는 사전간담회를 진행해 현장에서 체득한 오랜 실전 경영의 노하우를 중심으로 매장관리, 고객응대방법, 마케팅 사례 등을 어려운 소상공인들과 함께 나누겠다는 자발적인 프로보노 활동 의지를 밝혔다.

그간, 전북중기청에서는 백년가게의 프로보노 활동에 동참할 뜻을 밝힌 도내 유관기관을 방문하고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예산 확보와 연계사업 발굴 등 프로보노단이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해 왔다. 기관별 역할을 살펴보면, 전북중기청은 프로보노단 활동의 행정지원을 총괄하고, 중기공, 소진공, 경진원은 맞춤형 경영컨설팅과 교육 등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하며, 전북신보를 비롯한 금융기관(농협·전북은행)은 맞춤형 자금상담과 금융교육 등으로 다각적인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프로보노단은 신규 창업보다는 기존

백년가게 전북지역협의회, 8일 발대식 열기로

백종원식 멘토링·매장 관리 등 중점 추진

전북중기청·경진원·신보 등이 측면 지원

업체들의 생존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성공한 지역 리더들이 후배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구성됐다. 현장경험이 많은 백년가게가 참여하는 점에 중 소벤처기업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

'전북 소상공인 프로보노단'은 기존의 이론전문가뿐만 아니라 현장의 실용성을 중시하는 것들을 지양하고 백년가게 대표가 실제 경영현장에서 체득한 문제해결 기술이나 경험을 후배 창업자에게 전수하는 '전북형 백종원식 멘토링'을 실시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북 소상공인 프로보노단은 발대식 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돌입하며,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도내 소상공인에게 전북형 백종원식 멘토링과 컨설팅 및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

다. 또한, 멘토링 전과정을 촬영하고 편집영상을 '가치삼시다TV(유튜브)'와 중기부 네이버블로그에 홍보하고 시리즈로 보도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북 소상공인 프로보노단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전북지방중기청 안남우 청장은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주위 소상공인에게 전파해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전북 소상공인 프로보노단'이 기존 전문컨설팅과의 차별화된 서비스라고 생각한다"며 "전북중기청은 오늘 발대식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과 합심해 '프로보노단 활동'을 힘껏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NH로켓뱅크 가입하고 '밥심' 챙기세요"

전북농협, 건강한 밥상 '밥심' 대고객 이벤트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은 상호금융과 함께 우리쌀 소비 촉진을 위한 '건강한 밥상 심리향미(米)' 대고객 이벤트를 6일부터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31일까지 4주간 진행되며, NH로켓뱅크 이용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로켓뱅크 내 이벤트 팝업 화면을 클릭하면 응모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400명에게 전라북도에서 10년의 연구 끝에 개발한 신종 쌀 '예담재 심리향미(米) 4kg'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박성일 본부장은 "600만명이 넘는 NH로켓뱅크 이용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쌀 소비가 줄어드는 요즘 건강하고 맛있는 쌀밥을 먹고 밥심으로 건강을 챙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벤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NH로켓뱅크 앱과 스마트상점센터(1600-2800) 그리고 가까운 농·축협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의료서비스 품질 매년 향상 '인정'

전북대병원, 기재부 실시 고객만족도 조사 '우수' 등급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 등급 평가를 받았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대국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국 32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기타공공기관 의료부문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전북대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외래·입원·교육·연구 등 전 분야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전년도 평가점수를 훨씬 상회하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결과는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이 전북대병원의 의료서비스 품질이 매년 향상되고 있음을 인정해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전북대병원은 질환별 특화센터를 통한 전문적인 진료와 환자중심의 진료시스템 개선, 편의시설 확충 등 고 품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남천 병원장은 "이번 고객만족도 우수기관 선정은 병원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진료환경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인정해주고 높이 평가해줬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환자중심의 가치 아래 전 임직원 모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와 감동을 주는 병원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외형 구분 어렵네... 여름철 '야생버섯' 주의보

농진청, '중독사고 발생 위험성' 경고 "농가에서 생산한 안전한 버섯 섭취를"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여름철 야생버섯 섭취에 의한 중독사고 발생 위험성을 경고하고, 각별한 주의의를 당부했다.

장마철이 시작되는 7월에는 야생버섯의 발생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중독사고 발생 빈도도 증가한다. 우리나라에는 약 1,900여 종의 버섯이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약 400여 종만 먹을 수 있고 대부분은 독버섯이거나 식용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형태가 비슷한 식용버섯과 독버섯은 외형적인 특징만으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외형만 보고 식용여부를 선별해 판단하고 섭취할 경우 치명적인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화경술발버섯(Omphalotus japonicus)은 밤에 주름살 부분이 빛을 내는 신비로운 버섯이지만, 함부로 섭취하면 구토, 두통, 오한, 탈진 등의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 이 버섯은 반원형의 자실체, 주름살 등의 특징 때문에 식용버섯인 느타리(Pleurotus

ostreatus)와 혼동할 수 있지만 느타리와 달리 갓 표면이 약간 끈적끈적하고 대를 세로로 잘랐을 때 단면에 짙은 갈색 반점이 있다.

붉은사슴뿔버섯(Podostroma comradamae)은 소량만 섭취해도 죽음에 이를 만큼 독성이 매우 강한 버섯이다. 주로 나무 밑동에서 붉은색의 원통형 또는 뿔 모양의 자실체를 형성하는데, 겉모습은 영지(Garodermalingzhi)의 어린 자실체와 매우 비슷하지만 영지와 달리 전체적으로 붉은빛을 띠며 영지보다 갓의 윗부분이 뾰족하다. 하지만 건조 가공해 본래의 색채와 형태가 변한 경우에는 전문가조차도 두 버섯을 구분할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

야생버섯의 식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많이 쓰이는 민간 속설도 대부분 과학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맹신해서는 안 된다.

'색이 화려하지 않은 버섯, 세로로 잘 찢어지는 버섯, 끈초이나 달팽이가 먹은 흔적이 있는 버섯은 먹을 수 있다' 등의 속설은 모두 잘못된

(옛길리기 쉬운 독버섯과 식용버섯)



화경술발버섯(독)



느타리(식용)



붉은사슴뿔버섯(독)



영지(식용) 어린 균

것이다.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야생버섯을 먹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이미 섭취해 증상이 발생했다면 빨리 토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섭취한 독버섯을 가지고 병원을 찾아야 한다. /김윤상 기자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동환 버섯과장은 "무분별한 야생버섯 섭취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농가에서 생산한 신선하고 안전한 버섯을 섭취하길 권한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대표자 교육 9일까지 진행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이하 청년혁신가)에 참여하는 사업장(대표자)을 대상으로 인사·노무 교육 및 사회적경제 사례 분석 발표를 7일부터 9일까지 3일 간 '라한호텔 전주'에서 진행한다.

'청년혁신가'란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전북에 소재한 사회적경제 사업장(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 도내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최대 2년)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와 우리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대표자 교육은 노사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인사·노무 교육과 도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성과 사례 분석으로 크게 2가지로 구성됐다. 더불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표자들의 피해를 위로하기 위해 식권 공연 및 스트레스 해소 교실도 진행된다.

지원사업 관련 사항은 청년혁신가 홈페이지(http://청년혁신가.kr)와 경진원 자치경제팀(063-711-2086~8)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머리 맞대다

전건협 전북도회, 군산해수청 방문 공사물량 확보 간담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는 6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과 전문건설업 공사물량 확보 및 수주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김태정)는 6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정인)을 방문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과 전문건설업 공사물량 확보 및 수주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김태정 회장은 "100여년의 오랜 역사를 지닌 군산항을 21세기 서해안시대를 선도하는 동북아 최고의 물류중심항만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구성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도민에게 보다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도록 민생관련 사업에도 보다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올초 인프라건설을 위한 투자(SOC)예산이 12.6% 증가한 22조원대로 회복됐고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 하려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계획에 기대를 걸었던 건설업계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마련으로 SOC예산도 일부 삭감돼 건설업계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분위기"라며, "우리 도내의 침체된 지역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의 하도급 공사 참여 확대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박정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은 "어민 복리향상을 위한 수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늘 민생이 우선이고 전북도민의 발전이 곧 국민경제의 발전이라 생각한다"며 "추후 공사관련 사업 진행 시 지역업체 참여 및 지역자재사용을 보다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2,700여개 전문건설업체를 대변

하는 전북도회 김태정 회장은 발주처, 유관기관, 대형건설사 본사 및 시군 대형사업장 현장 방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지역업체의 수주를 향상과 하도급 참여 확대에 주력해 하반기에도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현장 중심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 스마트팜 청년보육

모집 경쟁률 3:1 '전국 최고'

5월 4일부터 이달 3일까지 모집 결과

과학기술 접목 작물 재배기술·마케팅 등

도 농식품인력개발원, 9월부터 전 과정 교육

수료시 장기임대 온실 우선 입주 등 혜택

전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은 '스마트팜'을 이끌어 갈 청년창업 농업인 양성을 위한 스마트팜 청년창업 3기 교육생 52명을 전국적으로 5월 4일부터 7월 3일까지 모집 결과 153명으로 타 지역보다 높은 경쟁률(3대1)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을 1, 2기 운영 결과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은 스마트팜에 특화된 현장 실습 중심의 첨단 시설원에 농업교육으로 스마트팜 청년창업농 양성에 모범적 사례로 인정받아 전국적으로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에 지원한 교육생 153명을 상대로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통해 3기 교육생 52명을 오는 7월말까지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은 선발된 교

육생을 대상으로 8월 중 오리엔테이션을 거친 후 9월부터 영농 지식과 기반이 없는 청년도 스마트팜에 취·창업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을 접목한 작물 재배기술, 스마트팜 운용, ICT온실 관리, 경영·마케팅 등 기초부터 경영실습까지 전 과정(최대 1년 8개월)을 교육한다.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 교육과정은 수료한 교육생에게는 취·창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스마트팜 장기임대 온실(성적우수자, 3년) 우선 입주, 스마트팜 종합자금 신청 자격 부여, 농민보 보증비율 우대 등을 받을 수 있다.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은 김재 백구에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